

회차	중세의 한국사 (고려)	
74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었다.	고려
74	[시대] 녹과전을 지급받는 관리	고려 무신집권기
74	[시대] 팔만대장경을 만드는 장인	고려 (몽골 침입)
74	시경, 서경, 역경 등을 주요 경전으로 삼았다.	성리학
74	[연도] 신승겸이 공산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927년
74	[연도] 왕건이 일리천에서 신검의 군대를 물리쳤다.	936년
74	[연도] 견훤이 고창 전투에서 고려군에게 패배하였다.	930년
74	[왕] 노비안검법, 제위보 설치, 후주와의 사신 왕래	고려 광종
74	[왕] 폐정 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을 설치하였다.	충목왕
74	[왕] 광덕, 준풍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광종
74	[왕] 예의상정소에서 상정고금예문을 편찬하였다.	인종
74	[왕]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성종
74	[왕]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경종
74	[왕] 거란 만부교 사건	태조 왕건
74	[왕] 묘청이 칭제 건원을 주장하였다.	인종
74	[시기] 강감찬이 홍화진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거란 3차 침입
74	[시기] 서희의 활약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거란 1차 침입
74	[시기] 최우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항전하였다.	무신정권
74	[왕]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 9성을 개척하였다.	숙종 (여진 침입 대비)
74	[왕] 7재 설치	고려 예종
74	[왕] 병자에게 약을 지급하는 혜민국이 설치되었다.	고려 예종
74	송광사 / 정혜결사 / 수선사	지눌
74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둔 백련 결사를 이끌었다.	요세
74	돈오점수를 바탕으로 꾸준한 수행을 강조하였다.	지눌
74	승려들의 전기를 기록한 해동고승전을 저술하였다.	각훈
74	선문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혜심
74	성상유회를 제창하여 교종 내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균여
74	권문세족 득세 / 공녀 / 변발과 호복	원간섭기
74	[시대] 농상집요를 소개하는 관리	고려 후기
74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다.	중추원
74	재추를 중심으로 국방, 군사 문제를 논의하였다.	도병마사
74	[왕] 주전도감에서 해동통보가 발행되었다.	고려 숙종
74	[국가]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고려
73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가 일반화되었다.	고려
73	도병마사에서 변경의 군사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고려
73	폐정 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을 설치하였다.	충목왕
73	12목에 지방관을 처음으로 파견하였다.	성종
73	[인물]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 견훤을 크게 물리쳤다.	태조 왕건
73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켰다.	문종
73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발행하였다.	숙종
73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광종
73	청연각과 보문각을 두어 학문 연구를 장려하였다.	예종
73	정계와 계백료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태조 왕건
73	[나라]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고려
73	[왕] 이자겸, 척준경, 김부식의 <삼국사기> 편찬	인종

회차	중세의 한국사 (고려)	
73	[왕] 최충헌이 봉사 10조를 올렸다.	명종 (1196)
73	[왕] 동북 9성이 여진에 반환되었다.	예종(1109)
73	[왕]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개칭되었다.	공민왕
73	[왕]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가 사용되었다.	광종
73	[왕] 묘청 등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인종 (1135)
73	특수 행정 구역인 소에 대한 차별에 일어난 반란	망이.망소이의 난
73	경기에 한하여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공양왕 (1391)
73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되었다.	광군
73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삼별초
73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하였다.	여몽연합군
73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편성되었다.	별무반
73	최영의 지휘 아래 홍산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고려 관군
73	강화도에서 봉기하였고, 진도를 거쳐 제주도로 옮겨와 항쟁했다.	삼별초
73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발해고 (유득공)
73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 설화를 담았다.	삼국유사 (일연)
73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었다.	제왕운기 (이승휴)
73	왕명에 의해 고승들의 전기가 기록되었다.	해동고승전 (각훈)
73	본기, 열전 등으로 구성된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삼국사기 (김부식)
73	[왕]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숙종
73	[왕] 신돈을 중심으로 전민변정 사업이 추진되었다.	공민왕
73	[왕] 만적이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 반란을 모의하였다.	신종
73	[왕] 최충이 문헌공도를 설립하여 유학 교육에 힘썼다.	문종
73	[왕] 이규보가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강조한 동명왕편을 지었다.	명종
73	[왕] 기철을 숙청하고 쌍성총관부를 수복했다.	공민왕
73	광군을 조직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거란
73	경성과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하였다.	여진
73	박위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왜구
73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을 추진하였다.	청나라
73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팔만대장경을 간행하였다.	원나라
73	[나라] 빈민을 구휼하는 제위보의 관리	고려
72	[나라] 상평창(물가 조절 기구) / 은병(화폐)	고려
72	서경을 복진 정책의 기지로 삼았다.	고려 태조
72	김사미와 효심이 난을 일으켰다.	고려 명종
72	훈요 10조를 남겼다.	고려 태조
72	관학을 진흥하고자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예종
72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광종
72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발행하였다.	숙종
72	정계와 계백료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고려 태조
72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고려 성종
72	12목 설치 / 개경에 국자감을 두었다.	성종
72	윤관을 보내 동북 9성을 개척하였다.	고려 예종 (여진)
72	화통도감을 두어 화포를 제작하였다.	최무선 (우왕)
72	광군을 조직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고려 정종 (거란)
72	박위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고려 창왕 (1389)
72	철령위 설치에 반발해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다.	고려 우왕

회차	중세의 한국사 (고려)	
72	초조대장경 조판 목적	거란 침입 대비
72	[인물] 삼국사기 편찬	김부식
72	봉사 10조를 국왕에게 올렸습니다.	최충헌 (명종)
72	관군을 이끌고 묘청의 난을 진압하였습니다.	김부식
72	만권당에서 원의 유학자들과 교류하였습니다.	이제현
72	불씨잡변을 저술하여 불교를 비판하였습니다.	정도전
72	9재 학당을 설립하여 유학 교육에 힘썼습니다.	최충 (고려 문종)
72	[연도] 조위총의 난	1174년
72	고려 왕의 개경 환도 배경	몽골에 항복 (13C)
72	노국 대장 공주 / 제국 대장 공주 / 계국 대장 공주	원 간섭기
72	권문세족이 도평의사사를 장악하였다.	원 간섭기
72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양을 제거하였다.	목종 폐위
72	김보당이 의종 복위를 주장하며 난을 일으켰다.	김보당의 난 (1173)
72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	최충헌
72	서적점, 다점 등의 관영 상점을 운영하였다.	고려
72	정치도감을 설치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고려 충목왕
72	공신들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고려 태종
72	전문 강좌인 7재를 운영하였다.	국자감
72	대사성을 수장으로 채주, 직감 등의 관직을 두었다.	성균관
72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고려 성종
71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고려
71	해동통보를 발행하여 화폐 유통을 추진하였다.	고려
71	역분전 제정	태조
71	문무 양반 및 군인들의 전시과를 개정하였다.	목종 (개정전시과)
71	경기에 한하여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공양왕 (1391)
71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광종 (958)
71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가 되었다.	공민왕
71	만적이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 반란을 모의하였다.	신종 (1198)
71	최충헌이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하였다.	명종 (1196)
71	일리천 전투에서 신검의 군대를 물리쳤다.	태조 왕건
71	흥왕사에 교장도감을 두고 속장경을 편찬하였어.	고려 성종
71	[시대] 망이 망소이의 난 등 하층민의 봉기가 발생하였다.	고려 무신집권기
71	[시대] 이의방 / 조위총의 반란 / 최우의 정방 설치	고려 무신집권기
71	박서의 귀주성 전투 / 송문주	몽골
71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항전하였다.	몽골 대항
71	광군을 창설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거란 (정종)
71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군사력을 증강하였다.	최무선 (우왕)
71	철령위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다.	우왕
71	신기군, 신보군, 향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창설하였다.	여진 대비 (숙종)
71	[나라] 삼감 청자 / 나전칠기 / 수월관음도	고려
71	[인물] 역옹패설 저술 / 만권당에서 조맹부, 요수 등의 문인들과 교류	이제현
71	[인물]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강조한 동명왕편을 지었다.	이규보
71	[인물] 정혜결사를 통해 불교 개혁에 앞장섰다.	지눌
71	[지역] 왕건이 고창 전투에서 견훤에게 승리하였다.	안동
71	[지역]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 간행되었다.	청주

회차	중세의 한국사 (고려)	
70	[나라]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가 일어났다.	고려 (망이.망소이의 난)
70	[나라] 경시서의 관리들이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였다.	고려 / 조선
70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둔 백련 결사를 제창하였다.	요세
70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혜심
70	권수정혜결사문을 작성하여 정혜쌍수를 강조하였다.	지눌
70	이론과 수행을 함께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시하였다.	의천
70	보현십원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균여
70	[왕] 조카 현종을 몰아내고 즉위 / 주전도감 설치 / 해동통보 발행	숙종
70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였다.	성종
70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광종
70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였다.	현종
70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태조
70	여진 정벌을 위해 별무반을 창설하였다.	숙종
70	정중부가 일으킨 정변 / 김보당이 의종을 경주로 피신시켜 복위를 시도	무신정변 (1170)
70	정동행성이 설치되는 배경	원간섭기
70	칭제 건원과 금국 정벌 주장	묘청
70	[배경] 서경유수 조위총의 반란	무신집권기 반발
70	고려의 강화 천도	몽골 1차 침입 이후
70	양규가 광주성을 급습하여 탈환하였다.	거란 2차 침입
70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최무선
70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국왕을 폐위하였다.	거란 2차 침입
70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몽골 2차 침입
70	이자겸과 척준경이 반란을 일으켜 궁궐을 불태웠다.	이자겸의 난 (1126)
70	[배경] 국난 극복을 기원하며 초조대장경이 조판되었다.	거란 침입
70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	원간섭기
70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모의하였다.	무신집권기
70	고려의 대표적인 사학	9재 학당 (최충)
70	성종이 흑창을 확대 개편하여 설치한 기구	의창
70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휼하였다.	제위보
69	[시대] 주전도감에서 해동통보를 발행하였다.	고려
69	[시대] 도병마사에서 변경의 군사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고려
69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태조 왕건
69	관학 진흥을 위해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예종
69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광종
69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성종
69	전시과 제도를 처음 마련하여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경종
69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담은 훈요 10조를 남겼다.	태조 왕건
69	[지역] 유수 조위총이 반란을 일으켰다 / 동녕부가 설치되었다.	서경 (평양)
69	[지역] 정서가 유배 중에 정과정이라는 고려 가요를 지었다.	부산 (동래)
69	[지역] 몽골의 침략으로 황룡사 구층 목탑이 소실되었다.	경주
69	[지역]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직지심체요절이 간행되었다.	청주
69	[지역]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고 국호를 대위라 하였다.	서경 (평양)
69	[시대] 은병 / 활구 / 도평의사사	고려
69	[시대] 서적점, 다점 등의 관영 상점을 운영하였다.	고려
69	광군을 창설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거란

회차	중세의 한국사 (고려)	
69	박위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왜구
69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 항전을 준비하였다.	몽골
69	선물 받은 낙타를 만부교에서 굶어 죽게 하였다.	거란
69	동북 9성을 설치하고 경계를 알리는 비석을 세웠다.	여진
69	[원인] 김사미 효심의 난, 이연년 형제의 난	무신 집권기 하층민 반란
69	사심판 제도를 시행하였다.	태조 왕건
69	노비안검법이 실시되었다.	광종
69	기철/기륜/기원/고용보 등을 제거	공민왕 (반원 정책)
69	적장 살리타가 말/비단/군사 의복 등을 요구하였다.	몽골 1차 침입
69	제국 대장 공주 / 침의부	원 간섭기
69	[연도] 신승겸이 공산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927년
69	최승로가 왕에게 시무 28조를 올렸다.	성종
69	김방경의 군대가 탐라에서 삼별초를 진압하였다.	몽골 침입 대비
69	강감찬이 개경에 나성을 축조할 것을 건의하였다.	거란 3차 침입
69	명의 철령위 설치에 반대 / 요동 정벌 추진	최영
69	화통도감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최무선
69	정변을 일으켜 목정을 폐위하였다.	강조
69	의종 복위를 도모하여 군사를 일으켰다.	김보당
69	교정별감이 되어 국정 전반을 장악하였다.	최충헌
69	홍산 전투에서 왜구를 물리쳤다.	최영
69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	원 간섭기
69	빈민 구제를 위해 흑창이 설치되었다.	태조 왕건
68	[왕] 서적포에서 책을 인쇄하는 관리	숙종
68	[왕] 국자감 학생들을 가르치는 박사	성종
68	[왕] 양현고의 재정을 관리하는 관원	예종
68	[왕] 9재 학당에서 유교 경전을 읽는 학생	문종 (최충)
68	[왕] 청연각의 소장 도서를 분류하는 학사	예종
68	[왕] 상평창 / 12목 설치	성종
68	노비안검법 / 쌍기 등용	광종
68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하였다.	성종
68	경기에 한하여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공양왕
68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판사가 되었다.	공민왕
68	빈민 구제 기관인 흑창이 처음 설치되었다.	태조 왕건
68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가 사용되었다.	광종
68	[연도] 여진이 고려에서 군신관계 요구	1117년
68	[연도] 윤관의 동북 9성 축조	1107년
68	[연도]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1135년
68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창설되었다.	어영청
68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하였다.	여몽연합군
68	신기군, 신보군, 향마군으로 편성되었다.	별무반
68	진도에서 용장성을 쌓고 몽골에 대항하였다.	삼별초
68	응양군과 용호군으로 구성된 국왕의 친위 부대였다.	고려 중앙군 (2군)
68	응방 / 몽골어 / 총렬왕 / 변발 및 호복 유행	원간섭기
68	승려 백운이 편찬 / 청주 흥덕사 / 현존 최고(最古)의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요절
68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제작하였다.	초조대장경

회차	중세의 한국사 (고려)	
68	독특한 회계 정리 방식인 사개치부법을 사용하였다.	고려
67	청연각과 보문각을 설치하여 학문 연구를 장려하였다.	고려 예종
67	왕권 강화를 위해 광덕,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고려 광종
67	과거제를 도입하였다.	광종
67	흑장을 처음 설치하였다.	고려 왕건
67	전시과 제도를 시행하였다.	경종
67	삼국사기 편찬을 명령하였다.	인종
67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성종
67	[왕]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거란군이 침입하였다.	고려 현종
67	만부교 사건이 일어났다.	태조 왕건
67	초조대장경 조판이 시작되었다.	현종
67	사신 저고여가 귀국 길에 피살되었다.	고종
67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봉기하였다.	무신집권기
67	신돈을 중심으로 전민변정 사업이 추진되었다.	공민왕
67	무신 집권기에 이의민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최충헌
67	인사 행정을 담당하던 정방을 폐지하였다.	공민왕
67	교정도감을 두어 국가의 중요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최충헌
67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로 이동하여 대몽 항쟁을 펼쳤다.	최우
67	화약과 화포 제작을 위한 화통도감 설치를 건의하였다.	최무선
67	후세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훈요 10조를 남겼다.	태조 왕건
67	[왕] 윤관의 동북 9성 축조	예종 (여진 침입 대비)
67	처인성 전투 / 적장 살리타 사살	몽골 2차 침입
67	외침에 대비하여 광군을 조직하였다.	정종
67	서희의 활약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성종 (거란 1차)
67	이제현이 만권당에서 유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충선왕
67	[왕] 묘청 등이 칭제 건원과 금 정벌을 주장하였다.	고려 인종
67	압록강에서 도련포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거란 침입
67	김방경이 일본 정벌에 필요한 전함을 건조하였다.	여몽연합군 (원간섭기)
67	사심관 제도를 시행	태조 왕건
67	권수정결결사문이 작성된 목적을 파악한다.	지눌
67	조위총의 난	무신집권기
67	정동행성 설치	원 간섭기
67	문헌공도로 불리기도 하였다.	최충 9재 학당
67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었다.	향교
67	전국의 부목군현에 하나씩 설치되었다.	향교
67	장학 기금 마련을 위해 양현고가 설립되었다.	예종 (국자감에 설치)
67	화폐와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였다.	고려 삼사
67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다.	중추원
67	소속 관원이 낭사와 함께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어사대
67	원 간섭기에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었다.	도병마사
67	[연도] 위화도 회군	1388년
67	[역사서]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체계화하였다.	제왕운기
67	[역사서] 고구려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하였다.	동명왕편
67	[역사서]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를 수록하였다.	삼국유사
67	의천의 건의로 주조된 화폐	해동통보

회차	중세의 한국사 (고려)	
66	삼한통보와 해동통보를 발행하였다.	고려
66	특수 행정 구역인 소에서 여러 물품을 생산하였다.	고려
66	계백교서를 읽는 관리	태조 왕건
66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학생	고려 충선왕
66	초조대장경을 조판하는 장인	거란 침입 (고려)
66	공음전 / 은병 / 벽란도 / 관영상점 / 경시서	고려 경제
66	광군을 창설하여 거란의 침입 대비	정종
66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물리침	거란 3차 침입
66	서희가 소손녕과 외교담판을 벌여 강동 6주 지역을 확보	거란 1차 침입
66	관리들의 부정을 감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담당	어사대
66	무신 집권기 최고 권력 기구	중방
66	원 간섭기에 첨의부로 격하되었다.	중서문하성 / 상서성
66	고려 말에 도평의사사로 개편	도병마사
66	관직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행사하였다.	어사대
66	고려가 외부 침략 이후 강화도로 천도하였다.	몽골 1차 침입
66	양규가 무로대에서 적군을 물리쳤다.	거란 침입 (고려)
66	김윤후가 충주성 전투에서 활약하였다.	몽골 5차 침입
66	송문주가 죽주성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	몽골 3차 침입
66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 9성을 쌓았다.	여진 침입
66	[시대] 묘청 등이 서경 천도를 주장하였다.	고려 문벌귀족
66	[시대] 최충헌이 왕에게 봉사 10조를 올렸다.	최씨 무신집권
66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왕을 폐위하였다.	거란 침입 (고려)
66	[시대] 이자겸과 척준경이 반란을 일으켜 궁궐을 불태웠다.	고려 문벌귀족
66	김보당이 폐위된 왕의 복위를 주장하며 군사를 일으켰다.	김보당의 난 (이의방)
66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격파하였다.	공민왕
66	전민변정도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농민	공민왕
66	지눌의 제자 / 수선사의 제2대 사주	혜심
66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여 불교 교단 통합에 힘썼다.	의천
66	선문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혜심
66	권수정혜결사문을 작성하여 정혜쌍수를 강조하였다.	지눌
66	보현십원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균여
66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렸다.	고려 성종
66	권근 등의 건의로 사병이 혁파되었다.	태종 이방원
66	안우, 이방실 등이 홍건적을 격파하였다.	홍건적 침입 (14세기)
66	망이 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하였다.	고려 무신정권
66	쌍기의 의견을 수용하여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고려 광종
66	[역사서] '우리 해동 삼국도 역사가 길고 오래되어 마땅히 그 사실이 책으로 기록되어야 하므로..	김부식 '삼국사기'
66	칠대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문헌공도를 만들어 사학을 진흥시켰다.	최충
66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였으며, 성리학의 보급에 기여하였다.	이재현
66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를 수록하였다.	삼국유사 (일연)
66	본기, 연표, 잡지, 열전 등으로 구성된 기전체 사서이다.	삼국사기 (김부식)
66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하였다.	동명왕편 (이규보)
66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 조선으로 삼았다.	삼국유사 (일연) 제왕운기 (이승휴)
65	[시대] 의창에서 곡시기를 빌리는 백성	고려

회차	중세의 한국사 (고려)	
65	[시대] 만권당에서 대담을 나누는 학자	고려
65	[시대] 혜민국에서 약을 받아 가는 환자	고려
65	[왕] '정계'와 '계백료서'를 반포 / 흑장을 두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었다.	태조 왕건
65	개국 공신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태조 왕건
65	외침에 대비하여 광군을 조직하였다.	고려 정종
65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고려 광종
65	관학 진흥을 목적으로 양현고를 운영하였다.	예종
65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발행하였다.	숙종
65	12목 설치	고려 성종
65	[왕] 왕규의 난	혜종
65	[왕] 강조의 정변	목종 폐위, 현종 즉위
65	초조대장경 조성 배경	거란 침입
65	[상대 나라] 박위를 보내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일본(왜)
65	[상대 나라] 개경을 방어하기 위해 나성을 축조하였다.	거란
65	[상대 나라] 압록강 상류 지역을 개척하여 4군을 설치하였다.	여진
65	문종의 아들로 송에 유학한 승려 / '신편제종교장총록' 간행	의천
65	불교 개혁을 주장하며 수선사 결사를 조직	지눌
65	선문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 일치설을 주장	혜심
65	불교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삼국유사를 집필	일연
65	국청사의 주지가 되어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의천
65	[연도] 무신정변	1170
65	[연도] 이자겸의 난	1126
65	[연도]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1135
65	[시대] 기철 / 정동행성 이문소	고려 원 간섭기
65	[시대] 도평의사사에서 회의하는 관리	고려 원 간섭기
65	[나라] 예성강 / 벽란정	고려 (벽란도)
65	[지역] 수덕사 대웅전	충남 예산
65	[지역] 부석사 무량수전	경북 영주
65	[지역] 봉정사 극락전	경북 안동
65	[시대] 여몽 연합군의 일본 정벌	고려 원 간섭기
65	[시대] 최무선 진포대첩	고려 말
64	[인물] 일리천에서 신검의 군대를 물리쳤다.	태조 왕건
64	벽란도를 통해 아라비아 상인과 무역하였다.	고려
64	해동통보를 발행하여 화폐 유통을 추진하였다.	고려 (숙종)
64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태조 왕건
64	폐정 개혁을 목표로 정치도감을 설치하였다.	충목왕 (고려)
64	만부교 사건 (거란의 낙타를 만부교 아래 묶어두고 굶김)	태조 왕건
64	양규의 활약	거란 2차 침입
64	외침에 대비하여 광군을 조직하였다.	정종
64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거란 3차 침입
64	화통도감이 설치되어 화포를 제작하였다.	최무선 (고려 말)
64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몽골 2차 침입
64	철령위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 정벌이 추진되었다.	고려 우왕
64	인종 때, 척준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킴	이자겸의 난 (1126)
64	화폐 사용 주장 / 여진 정벌 후 동북 9성 축조	윤관

회차	중세의 한국사 (고려)	
64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의천
64	경시서의 관리들이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였다.	고려
64	몽골 침입 당시 항전을 위해 강화 천도를 강행하였다.	최우
64	인사 행정 담당 기구로 정방을 설치하였다.	최우
64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하였다.	최충헌
64	삼별초를 이끌고 진도 용장성에서 항전하였다.	배중손
64	군사를 일으켜 정중부 등의 제거를 도모하였다.	경대승
64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권문세족을 견제하였다.	신돈
64	빈민 구제를 위한 흑창이 처음 설치되었다.	고려 왕건
64	유인우, 이자춘 등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하였다.	공민왕 반원정책
64	[시대] 김보당이 의종 복위를 주장하며 난을 일으켰다.	무신정권
64	[시대] 망이/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하였다.	무신정권
64	[시대] 새로운 역법으로 수시력이 도입되었다.	원간섭기
63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되었다.	고려
63	[연도] 김부식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였다.	1135년
63	[연도] 이자겸이 금의 사대 요구를 수용하였다.	1126년
63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차지하였다.	무신정권 초기
63	교정별감 설치	최충헌
63	정방 설치	최우
63	공산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고려 신승겸 장군
63	노비안검법 시행	고려 광종
63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하였다.	고려 성종
63	광덕, 준풍 등의 연호가 사용되었다.	고려 광종
63	관리의 규범을 제시한 계백료서가 반포되었다.	고려 태조왕건
63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복을 수복하였다.	고려 공민왕
63	서적포 / 국자감에 전문 강좌인 7재 개설 / 양현고 설치	관학 진흥책
63	강조의 정변 / 양규의 활약	거란 2차 침입
63	강감찬 귀주대첩	거란 3차 침입
63	[상대 나라]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항전하였다.	몽골
63	[상대 나라] 광군을 조직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거란
63	[상대 나라] 박위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일본
63	[상대 나라] 압록강 상류 지역을 개척하여 4군을 설치하였다.	여진
63	[상대 나라]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별무반을 편성하였다.	여진
63	[인물] 선종의 승려임에도 교종 포용 / 순천에 있는 송광사에서 신앙 결사 운동	지눌
63	참선을 강조하고 돈오점수 주장하였다.	지눌
63	불교 교단 통합을 위해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의천
63	선문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 일치설을 제창하였다.	혜심
63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하여 해동고승전을 편찬하였다.	각훈
63	보현십원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균여
63	[연도] 과전법 실시	1391년
63	[나라] 도병마사 / 홍왕사 창건	고려
63	[나라]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	고려
63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고려 성종
63	[나라] 서경에 관영 상점이 설치되었다.	고려
63	[나라]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고려

회차	중세의 한국사 (고려)	
63	[지역]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 해방을 도모하였다.	개성/개경
63	살리타이가 처인성을 공격하였다.	몽골 2차 침입
62	빈민 구제 기관인 흑창을 설치	태조왕건
62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	성종 (고려)
62	국자감에 7재라는 전문 강좌를 운영	예종 (고려)
62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 사용	광종 (고려)
62	전시과 제도를 마련하여 관리에게 토지 지급	경종 (고려)
62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항복하였다.	태조왕건
62	고려 우왕 때 나세, 심덕부 등이 진포에서 크게 물리쳤다.	일본
62	고려 창왕 때 박위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일본
62	윤관의 동북 9성 설치	여진
62	[나라] 삼한통보, 해동통보 등이 발행	고려
62	[나라] 국사/왕사 제도를 두어 불교를 장려 (양산 통도사 국장생 석표)	고려
62	[나라] 상감청자 / 청동정병 / 금동 침통	고려
62	[나라] 수월관음도 / 나전 칠기	고려
62	서희의 외교담판	거란 1차 침입
62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국왕 폐위	거란 2차 침입 배경
62	양규가 적을 무로대, 이수, 석령에서 크게 물리쳤다.	거란 2차 침입
62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	몽골 2차 침입
62	다인철소의 주민들이 충주에서 항전	몽골 6차 침입
62	[연도] 이자겸이 척준경에 의해 축출되었다.	이자겸의 난 (1126)
62	[연도]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1135년
62	제국 대장 공주	원 간섭기
62	대각국사 의천이 해동 천태종을 개창	고려 숙종
62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	원 간섭기
62	국난 극복을 기원하며 초조 대장경이 조판	거란 3차 침입 이후
62	노비 만적이 반란을 모의	만적의 난 (최충헌)
62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판사가 되었다.	공민왕
62	[배경] 조위충의 난	정중부, 이의방의 정변
62	광군사의 통제를 받았다.	고려 광군 (정중-거란 침입 대비)
62	개경 환도 결정에 반발하여 항쟁하였다.	삼별초
62	몽골의 포로를 한 부대로 삼아 '신의군'을 조직	삼별초
62	역옹패설과 사략을 저술	이재현
62	왕명에 의해 삼국사기 편찬	김부식
62	문헌공도를 설립하여 유학 교육에 힘썼다.	최충 (9재 학당)
62	불교 개혁을 주장하며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지눌
62	성균관의 대사성이 되어 정몽주 등을 학관으로 천거하였다.	이색
62	이곡의 아들 / 고려 후기 성리학의 보급	이색
62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치	고려 우왕
62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고려 성종
62	[시대] 벽란도에서 인삼을 사는 송의 상인	고려
62	지공거와 합격자 사이에 좌주와 문생 관계 형성	과거제
62	제술과, 명경과, 잡과, 승과로 구성	과거제
62	성균관에서 보는 판시, 한성부에서 보는 한성시, 각 지방에서 보는 향시로 구분	과거제

회차	중세의 한국사 (고려)	
62	최승로의 시무 28조	고려 성종
61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시하였다.	고려 태조 왕건
61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재정을 확충하였다.	고려 광종
61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 무역을 장악	장보고
61	[연도]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1135년
61	초조대장경을 조판하는 장인	고려 현종
61	정동행성에서 회의하는 관리	원간섭기
61	화엄 사상 / 부석사 건립 / 관음 신앙	의상
61	귀법사의 주지 / 보현십원가	균여
61	천태종 / 교관겸수	의천
61	법화 신앙 / 백련 결사	요세
61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 일치설 주장	혜심
61	정혜상수와 돈오점수를 수행 방법으로 제시	지눌
61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편찬	의천
61	9산 선문 중 하나인 가지산문을 개창	도의
61	국제 무역항 벽란도	고려
61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을 주조하였다.	고려
61	윤관을 보내 동북 9성을 축조	여진
61	박위로 하여금 쓰시마섬을 정벌	일본
61	서희가 외교담판을 통해 강동 6주 획득	거란 1차
61	최우가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 장기 항전에 대비	몽골
61	최영이 철령위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 정벌을 추진	명나라의 철령위 설치
61	화통도감의 설치를 건의	고려말 최무선
61	삼한통보, 해동통보	고려 숙종
61	경시서의 관리들이 수도의 시전 감독	고려 경제
61	유교 사관에 입각하여 기전체 형식으로 저술	김부식 '삼국사기'
61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 설화 등을 수록	일연 '삼국유사'
60	소를 이용하여 깊이갈이를 하였다.	고려
60	김윤후의 충주성 전투	몽골 3차 침입 (13c)
60	최무선의 진포 전투 승리	왜구 침입 (14c)
60	이자겸의 난	고려 문벌귀족 (12c)
60	[시대] 경시서의 관리들이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였다.	고려시대
60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고 풍기를 단속하였다.	어사대 (고려)
60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주관하였다.	한성부 (조선)
60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를 담당하였다.	삼사 (고려)
60	강감찬의 귀주대첩	거란 3차 침입
60	강조의 정변	거란 2차 침입 배경
60	화통도감이 설치되어 화포가 제작되었다.	우왕
60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설치를 건의하였다.	공민왕
60	거란이 침입하여 왕이 나주까지 피난하였다.	거란 2차 침입 (현종)
60	노비안검법의 실시로 국가 재정이 확충되었다.	광종
60	신기군, 신보군, 향마군 등으로 구성된 별무반이 조직되었다.	숙종
60	빈민 구제를 위한 흑창을 처음 설치하였다.	태조 왕건
60	조준 등의 건의로 제정되었다.	과전법
60	관등과 인품을 기준으로 수조권을 주었다.	시정 전시과 (경종)

회차	중세의 한국사 (고려)	
60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다.	과전법 (공양왕)
60	시무 28조를 올려 국가 운영 방안을 제시	최승로
60	9재 학당을 설립하여 유학 교육에 힘씀	최충
60	유교 사관에 입각하여 삼국사기 편찬	김부식
60	고려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도입	안향
60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	이재현
60	국학 7재	예종 (고려)
60	일본 원정을 위해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원 간섭기
60	몽골 사신 저고여가 귀국길에 피살되었다.	몽골 침입 배경
60	철령위 설치 문제로 요동 정벌이 추진되었다.	우왕 (고려)
60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거란 1차 침입
60	최영이 홍산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고려 말 왜구
60	[시대] 주전도감에서 해동통보를 만드는 장인	고려
60	대장도감에서 판간한 목판으로 찍었다.	팔만대장경
60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간행하였다.	직지심체요절
59	역분전 제정	태조 왕건
59	쌍기의 건의 / 과거제 시행	광종
59	12목 제도	성종
59	여진에 대비해 별무반을 창설하였다.	숙종 (윤관)
59	천수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태조 왕건
59	관학을 진흥하고자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예종
59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발행하였다.	숙종
59	호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였다.	광종
59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유학 교육을 장려하였다.	충선왕
59	김부식이 묘청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서경 천도 운동 (1135)
59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양을 제거하였다.	거란 2차 침입
59	망이/망소이가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하였다.	무신정권
59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거란 1차
59	최충헌이 봉사 10조를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하였다.	무신 정권
59	정동행성 이문소 철폐 / 기철 (친원 세력) 숙청	공민왕
59	정지가 관음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고려 우왕
59	국정 총괄 기구로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	최충헌
59	신돈을 중심으로 전민변정 사업이 추진되었다.	공민왕
59	만권당이 설립되어 원과 고려의 학자가 교류하였다.	충선왕
59	경기에 한하여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공양왕
59	고려 현종 때 대장경판 제작하여 침입 대비한 나라	거란 (초조대장경)
59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몽골 2차 침입
59	박위를 파견하여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일본/왜
59	개경을 방어하기 위해 나성을 축조하였다.	거란 3차 침입 이후
59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다.	일본/왜 (조선)
59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 항전을 준비하였다.	몽골 1차 침입 이후
59	고려의 독자적 정치 기구 / 도평의사사로 개편	도병마사
59	역사서 편찬과 보관을 주관하였다.	춘추관
59	주로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였다.	도병마사
59	화폐,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담당하였다.	고려 삼사

회차	중세의 한국사 (고려)	
59	최우에 의해 설치되어 인사 행정을 처리하였다.	정방
59	최충이 9재 학당을 설립하였다.	문종 (고려 문벌귀족)
59	빈민 구제를 위해 흑창이 설치되었다.	태조 왕건
59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속종
59	[시대] 만적이 개경에서 신분 해방을 도모하였다.	무신정권 (최충헌)
59	[시대]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	원간섭기
59	승려 일연이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 설화 등을 수록한 역사서	삼국유사
59	편년체 형식으로 기술	조선왕조실록, 동국통감, 고려사절요
59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서술되었다.	삼국유사 (일연)
59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발해고 (유득공)
59	왕명에 의해 고승들의 전기가 기록되었다.	해동고승전 (각훈)
59	고구려 시조의 일대기가 서사시로 표현되었다.	동명왕편 (이규보)
59	최영에 의해 이인임 일파가 축출되었다.	우왕 (고려)
59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이 설치되었다.	우왕 (고려)
59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되었다.	성종 (고려)
59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 경시서가 설치되었다.	문종 (고려)
59	공녀를 보내기 위해 결혼도감을 설치한 나라	원나라
59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심체요절이 간행되었다.	고려 시대
59	무신 집권기 지배층의 수탈에 대한 저항	김사미/효심의 난 망이/망소이의 난
59	김윤후와 함께 관노들이 몽골군에서 항전한 지역	충주
58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고려
58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광종 (고려)
58	12목 설치한 왕	성종 (고려)
58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광종
58	관학 진흥을 위해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예종
58	국자감을 성균관으로 개칭하고 유학 교육을 강화하였다.	충선왕 (고려)
58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성종 (고려)
58	정계와 계백교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태조
58	구제도감 설치한 나라	고려 (예종)
58	기인 제도를 실시하였다.	고려
58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를 운영하였다.	고려 (광종)
58	서희를 보내 소손녕과 외교 담판을 벌였다.	거란 1차 침입
58	별무반을 조직하고 동북 9성을 축조하였다.	여진 (윤관)
58	강화도로 도읍을 옮겨 장기 항전을 준비하였다.	고려 (고종)
58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다.	왜구
58	김종서를 보내 6진을 개척하였다.	여진
58	삼별초를 조직하여 대항하였다.	몽골
58	주전도감 설치하고 화폐 유통시킨 왕	속종 (고려)
58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 무역을 전개하였다.	통일신라
58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이 설치되었다.	신라 (지증왕)
58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되었다.	속종 (고려)
58	이규보가 건국 영웅의 일대기를 서술한 장편 서사시 / 고구려 계승 의식 반영	동명왕편
58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유득공 '발해고'
58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하였다.	조선왕조실록

회차	중세의 한국사 (고려)	
58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 를 수록하였다.	일연 '삼국유사'
58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 이다.	김부식 '삼국사기'
58	진도에서 용장성을 쌓고 항전하였다.	삼별초 (몽골)
58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영토를 되찾았다.	몽골 (고려 공민왕)
57	여진 침입 대비하여 윤관의 건의 로 조직	별무반
57	연호 ' 준종 ' / 백관의 공복 정하고, 개경을 황도로 명명함	광종 (고려)
57	12목 에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성종 (고려)
57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 가 시행되었다.	광종 (고려)
57	대장도감에서 팔만대장경 이 간행되었다.	몽골 항쟁 (최우)
57	안우, 이방실 등이 홍건적을 격파 하였다.	공민왕
57	신돈이 전민변정도감 의 책임자가 되었다.	공민왕
57	양계와 5도 / 은병	고려
57	불법적인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서 의 관리	고려 (문종)
57	원종이 강화에서 송경으로 환도 할 적에... / 미처 강화를 떠나지 못한 신료와 군사들을 강제로 이끌고 남쪽으로...	몽골과 강화를 맺어 개경(송경)으로 환도
57	김윤후 가 처인성 에서 몽골군을 격퇴하였다.	몽골 2차 침입
57	칭제 건원 과 금국 정벌을 주장하였다.	묘청/정지상
57	김방경의 군대가 탐라에서 삼별초를 진압 하였다.	삼별초 항쟁 (몽골 강화 이후)
57	봉사 10조 를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하였다.	최충헌 (무신정권)
57	정중부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경대승 (무신정권)
57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 주심포 양식	안동 봉정사 극락전
57	9재 학당(문헌 공도) + 사학 12도	최충
57	국자감 위상 하락 국학 7재, 청연각, 보문각	관학 진흥책 (고려)
57	만권당 을 설립하여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게 하였다.	원간섭기 (충선왕)
57	경당 을 설치하여 청소년에게 글과 활쏘기를 가르쳤다.	고구려 지방교육 기관
57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 을 두었다.	우왕 (고려)
57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 이 진행되었다.	고려
57	정혜쌍수 와 돈오점수 를 주장하였다.	지눌 (고려)
57	부처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 이요, 유교의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 이니...	최승로 '시무 28조' 유교치국 > 불교수신
57	불교 행사를 줄이고 , 불교적 관행을 폐지하였다 (연등회, 팔관회 폐지)	최승로
57	[지역] 만월대 / 고려 옛 궁터	개경 / 개성
57	[지역] 서희 가 소손녕과의 외교 담판을 통해 확보한 곳	강동 6주
57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 가 일반화되었다.	고려 (우경 일반화)
56	법화 신앙을 바탕으로 백련 결사 를 이끌었다.	요세
56	불교 교단을 통합하기 위해 천태종 을 개창하였다.	의천
56	심성 도야를 강조한 유불 일치설 을 주장하였다.	혜심
56	13곳의 조창 에 조세를 모았다가 개경의 경창 등으로 조운하였다.	고려 (조창 제도)
56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 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고려
56	양규 가 무로대에서 거란군을 습격하였다.	거란 2차 침입
56	거란 침입 대비하여 군사 광군 을 조직 하고 광군사 를 설치하였다.	정종
56	소손녕 의 봉산군 공격 소식에 서희 를 보내 화의를 요청하였다.	거란 1차 침입
56	강감찬 등이 귀주에서 거란군에 맞서 싸웠다.	거란 3차 침입

회차	중세의 한국사 (고려)	
56	특수 행정 구역인 소의 주민들이 차별 을 받았다.	고려 (향/소/부곡 차별)
56	모든 주와 부에 의창 을 설치하였다.	성종 (고려)
56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 시켰다.	문종
56	국자감 에 서적포 를 설치하였다.	숙종
56	12목 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성종 (고려)
56	인사 행정을 담당하던 정방 을 폐지 하였다.	공민왕
56	개경에 귀법사 를 세우고 균여 를 주지로 삼았다.	광종
56	원의 영향 을 받아 대리석으로 만든 석탑	개경 경천사지 10층 석탑
56	역사서인 사략 을 저술하였다.	이제현 (공민왕)
56	불씨잡변 을 지어 불교를 비판하였다.	정도전
56	9재 학당 을 세워 유학 교육에 힘썼다.	최충
56	봉사 10조 를 올려 시정 개혁을 건의하였다.	최충현
56	예안 향약 을 시행하여 향촌 교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황 (조선)
56	충선왕 의 초빙으로 원나라 로 건너가 만권당 에서 연구하였다.	이제현 (공민왕)
56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 를 운영하였다.	고려
56	용호군 과 함께 궁성을 호위하였다.	응양군 (고려 2군 중앙군)
55	화랑도 의 규범인 세속 5계 를 제시하였다.	원광
55	향가 모음집인 삼대목 을 편찬하였다.	위홍 / 대구화상
55	2군 6위 의 군사 조직을 운영하였다.	고려 (중앙 군사)
55	고창 전투 에서 견훤에 맞서 싸웠다.	태조 왕건
55	신라에 침입하여 경애왕 을 죽게 하였다.	견훤
55	국자감에 7재 라는 전문 강좌를 개설하였다.	예종
55	마진 이라는 국호와 무태 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궁예
55	정계 와 계백료서 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왕건
55	후주와 사신 을 교환 하여 대외 관계의 안정을 꾀하였다.	광종
55	왕규의 난 이 일어났다.	혜종 (고려)
55	전국에 12목 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성종 (고려)
55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 가 도입되었다.	광종 (고려)
55	해동통보, 활구 등의 화폐를 발행하였다.	숙종 (고려)
55	거란 소손녕 침입, 서희의 외교담판	거란 1차 침입
55	강감찬의 나성 축조	거란 3차 침입
55	사신 저고여 가 귀국길에 피살되었다.	몽골과의 항쟁
55	화통도감 이 설치되어 화포를 제작하였다.	최무선 (우왕)
55	나세, 심덕부 등이 진포 에서 왜구를 물리쳤다.	진포대첩 (우왕)
55	강조가 정변 을 일으켜 목종을 폐위시켰다.	거란 2차 침입
55	만적 이 개경에서 반란을 모의하였다.	고려 무신정권
55	왕실의 외척인 이자겸 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자겸의 난 (문벌귀족 이후)
55	유인우, 이인임 등이 쌍성총관부 를 수복하였다.	공민왕
55	9재 학당 을 설립하여 유학을 교육하였다.	최충 (고려 전기)
55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교정도감 이 설치되었다.	고려 무신정권
55	국왕이 나주까지 피란 하였다.	거란 2차 침입
55	초조 대장경 간행의 계기가 되었다.	거란 침입

회차	중세의 한국사 (고려)	
55	김부식 등이 이끈 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묘청 서경 천도 운동
55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위화도 회군
55	여진 정벌을 위한 별무반 편성 에 영향을 주었다.	숙종 (고려)
55	불교사 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 를 수록	삼국유사
55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	조선왕조실록
55	유교 사관에 입각하여 기전체 형식 으로 구성	삼국사기
55	단군부터 충렬왕 까지의 역사를 서사시로 서술	제왕운기
55	강목체 로 고려 왕조의 역사 를 정리	본조편년강목
54	최승로가 자신의 견해를 담은 시무28조 상소문을 올렸다.	성종
54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혹창 을 처음 설치하였다.	태조 왕건
54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비안검법 을 실시하였다.	광종
54	청언각 과 보문각 을 두어 학문 연구를 장려하였다.	예종
54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 전민변정도감 을 운영하였다.	공민왕
54	전국의 주요 지역에 12목 을 설치하여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성종
54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으로 편성되어 있다.	별무반
54	원의 요청 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하였다.	고려 말 (원 간섭기)
54	여진을 정벌하여 동북 9성 을 축조하였다.	별무반
54	처인성 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 를 사살하였다.	고려 말 (원 간섭기)
54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 역할을 하였다.	도방
54	묘청의 난(1135) 진압 이후 유교 사관을 바탕으로 삼국의 역사 를 기록한 역사서	삼국사기 (김부식)
54	남북국 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발해고 (유득공)
54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조선왕조실록
54	본기, 열전 등 기전체 형식 으로 서술되었다.	삼국사기 (김부식)
54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 를 서사시로 표현하였다.	동명왕편 (이규보)
54	순천 송광사를 근거로 불교계 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돈오점수 를 주장하였다.	지눌
54	승려들의 전기를 담은 해동고승전 을 집필하였다.	각훈
54	권수정혜결사문을 작성하여 정혜쌍수 를 강조하였다.	지눌
54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편찬 하였다.	의천
54	보현십원가 를 지어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균여
54	인품을 배제 하고 관직과 위계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전지와 시지 를 지급하였다.	개정전시과 (고려 목종)
54	국가 주도로 삼한통보, 해동통보 가 발행되었다.	숙종 (고려)
54	쌍성총관부를 폐지 하고 철령 이북 지역을 회복하였다.	공민왕
54	화통도감 을 설치하여 화포 를 제작하였다.	최무선 (고려 우왕)
53	활구 라고 불리는 은병 이 유통되었다.	숙종 (고려)
53	중국의 농성인 농상집요 가 소개되었다.	고려 후기
53	면화, 고추 등이 상품 작물 로 재배되었다.	조선 후기
53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 경시서 가 설치되었다.	고려
53	철전인 건원중보 를 발행하였다.	성종 (고려)
53	연호를 광덕 이라 정하고, 백관의 공복 을 정했다.	광종 (고려)
53	왕권 강화를 위해 노비안검법 을 실시했다.	광종 (고려)
53	전국에 12목 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였다.	성종 (고려)
53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 를 발행하였다.	숙종 (고려)
53	거란 침입 에 대비하여 개경에 나성 을 축조하였다.	현종 (고려)
53	국자감 에 서적포를 두어 출판을 담당하게 하였다.	숙종 (고려)

회차	중세의 한국사 (고려)	
53	시정을 논박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규찰과 탄핵 업무를 담당하였다.	어사대 (고려)
53	소속 관원이 낭사와 함께 서경권 을 행사하였다.	어사대 (고려)
53	[고려] 국정을 총괄 하는 중앙 관서였다.	중서문하성
53	무신 집권기 최고 권력 기구 였다.	교정도감
53	원 간섭기에 도평의사사 로 명칭이 바뀌었다.	도병마사
53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숙청하고 정동행성 이문소 를 폐지 하였다.	공민왕
53	만권당을 두어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충선왕
53	신돈 을 등용하여 전민변정도감 을 운영하였다.	공민왕
53	쌍기 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 를 실시하였다.	광종
53	최승로의 시무 28조 를 받아들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성종
53	거란 침입에 대비하여 광군 을 조직하였다.	정종
53	여진 침입 대비하여 윤관 의 건의로 별무반 을 창설하였다.	숙종
53	왜 침입 대비하여 화통도감 을 설치하여 화포를 제작하였다.	최무선
53	최우 의 강화도 천도 / 김윤후의 처인성 전투 / 충주성 전투	몽골 침입 (13c)
53	서희 의 외교담판, 강동 6주 / 강조의 정변 , 양규 의 활약 / 강감찬 ' 귀주대첩 '	거란 침입 (10c)
53	윤관 의 별무반 , 동북 9성 / 금나라 건국 / 군신관계 요구	여진 침입 (12c)
53	정혜쌍수 와 돈오점수 를 주장하였다.	지눌
53	황룡사 구층 목탑 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자장
53	백련사 결사 를 통해 불교 정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요세
53	교장도감 을 설치하여 불교 경전 주석서를 편찬하였다.	의천
53	국정사를 창건하여 천태종 을 개창하였다.	의천
53	공주 명학소 에서 '소'의 차별에 반발하여 봉기하였다.	망이 망소이의 난